

도, 중앙차로 확대 개편 카드 꺼냈다

내년 3월부터 광양사거리~해태동산까지 구간 광양사거리~국립박물관도 하반기 중으로 도입 “가뜩이나 혼잡한데...” 우려와 반발 목소리도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바닥을 헤맨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제주도가 '버스 중앙차로 확대'라는 카드를 다시 한 번 꺼냈다. 5년 전 광양사거리~아라초 2.7km 중앙차로 시행 때처럼 우려와 반발도 잇따르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광양사거리~신제주입구교차로(해태동산)를 잇는 서광로 3.1km 구간에 대한 중앙차로 설치 공사가 진행된다

다. 이 구간은 2017년부터 '가로변 차로제'가 운영됐지만, 이번 공사를 통해 1차선을 우선차로로 삼는 중앙차로로 변경된다. 본격적인 운영은 내년 3월이다.

아울러 제주도는 내년 하반기 운영을 목표로 광양사거리~국립제주박물관을 잇는 동광로 2.1km 구간에 대해서도 중앙차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앙차로 확대 소식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광양사거리~신제주입구교차로를 통해 출·퇴근하고 있는 이모(34)씨는 “가장 문제가 되는 구간은 오라오거리”라며 “오라오거리는 공항을 오가는 렌터카 때문에 원래부터 정체가 심했는데, 최근에는 ‘드라이브 스루(Drive-Through)’ 방식의 대형 커피 전문점까지 들어서 교통혼잡이 극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이런 상황에서 중앙차로가 도입되면 정체 심화는 물론 사고 발생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 차선 감소와 좌회전·유턴 신호 복잡 등 관광객을 포함한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주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시내 도로를 혈관으로 빚대면 동맥경화에 이른 상태”라며 “중앙차로 도입 확대에 대해 반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가뜩이나 막히는 도로 상황에서 개인이 아닌 대중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우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에서 대중교통 수송분담률(택시 제외)은 2017년 14.7%, 2018년 14.2%, 2019년 14.6%, 2020년 14.7%로 바닥을 헤매고 있다. 반면 버스업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2018년 913억8600만원, 2019년 910억6300만원, 2020년 977억6500만원, 2021년 1039억73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상황이다. **송은범기자**

5506억 소요 교육감 공약 잇단 수정 학교체육관 무료 개방 등 50개 중 23개 변경 확정 직업체험관 설립 등 일부 시설 조성 공약도 후퇴

17대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공약한 50개 과제 실천에 필요한 예산이 나온 가운데 일부 공약이 폐기 또는 축소됐다. 학교체육관 무료 개방, 스마트기기 지원 등 그동안 논란이 컸던 공약 외에도 시설 조성 약속 등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본보가 7월 1일 김광수 교육감 취임 당시 제주도교육청이 공개한 5대 영역 50개 과제 목록과 현재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과제를 비교해봤더니 자구 수정을 포함 총 23건의 변동이 있었다. 홈페이지 게시 공약은 지난달 26일 제17대 제주도교육감 공약실천위원회 출범 이후인 지난 5일 수정이 이뤄진 것이다.

이에 따르면 1영역 '더불어 함께 쌓아가는 돌담형 제주교육'에서는 '교육활동 지원 교무학사전담교사제' 운영이 '교육활동지원 교무행정지원인력 확충'으로, '내부형 및 초빙형 교장공모제 보완'은 '교장 공모제 내실화'로 바뀌었다. '학교체육관 무료 개방'은 '학교체육관 사용자 부담 최소화'로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

2영역 '미래를 선도할 학교체제 개편' 중 '예술·체육학교 신설 또는 전환'은 '체육 중·고등학교/예술고등학교 신설 또는 전환'으로, '과밀화 제주영지학교 캠퍼스 분리, 전공학과 확대 설치'는 '제주영지학교 과밀화 해소, 전공과 확대 설치'로 각각 수정됐다. '특성화고 현장실습 폐지'는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폐지'로 대상을 명확히 했다.

3영역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개

인 맞춤형 교육시스템 구축'에서는 '초·중학생 스마트기기(태블릿 및 노트북) 지원'이 '중학생 스마트기기 지원'으로 축소됐다. '고3 학생 진로·진학비 지원'은 '고3 진로지원비 지원'으로, '농어촌 학교 통학버스 및 교통비 지원'은 '읍면지역학교 학생 통학버스(교통비) 지원'으로 각각 그 내용이 바뀌었다.

4영역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 조성'에 속한 과제 중 인프라 확충과 관련한 '스포츠 재활 치료센터 건립'은 '학생선수 스포츠 재활 치료지원망 구축'으로, '코로나19 종합지원센터 구축'은 '감염병 위기대응 종합지원망 구축'으로 각각 달라졌다. 5영역 '4차산업혁명 시대 대비 제주형 미래교육 강화'에서는 '잡월드(직업체험관) 설립'이 '체험형 진로직업교육 기반 확대'로 교체됐다.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 지원' 공약은 '영어교육도시 내 신규 국제학교 설립 승인'으로 수정됐다.

한편 제17대 교육감 공약실천위는 지난 15일 2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50개 공약 과제 실천 계획(안)을 심의 확정하고 공약 실천에 따른 총 사업비로 5506억원을 제시했다. 영역별 예산은 1영역 10개 과제 106억원, 2영역 11개 과제 2318억원, 3영역 8개 과제 1255억원, 4영역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 조성' 12개 과제 1224억원, 5영역 9개 과제 603억원 등이다. 이는 16대 교육감 당시 공약 실천 총 사업비 3951억원보다 1555억원(39.4%) 늘어난 규모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태풍 '난마돌' 복상에 제주 경찰·소방 초긴장 비상근무 발령·예찰활동 강화

제14호 태풍 '난마돌' 복상과 관련해 제주 경찰과 소방당국이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한 만반의 준비에 나섰다.

제주경찰청은 18일 제주경찰 모든 지휘부가 참석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오전 11시부터 전 경찰관에게 재난비상근무 병호를 발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긴급 대책회의는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북상하며 제주지역에 간접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진행됐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6일 태풍 대비 사전점검 회의를 열고 ▷단계별 긴급구조 통제단 가동 등 소방력 동원 준비 ▷동력펌프 등 수방장비 사전 점검을 통한 100% 가동상태 유지 ▷의용소방대 합동 해안변·저지대 등 침수피해 우려 지역과 항·포구 및 취약지역 주력 예찰 활동 강화 ▷현장대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교육 실시 등 태풍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한편 제주소방은 제11호 태풍 '한남노' 내습 시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인명구조 14명 등 총 326건의 태풍 피해를 처리했다. 김도영기자



제주수학축전 수학 체험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도가 주최하는 제주수학축전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치러진 가운데 17일 탐라교육원을 찾은 방문객들이 도내 초·중·고 수학동아리에서 각각 마련한 체험 부스에서 일상 속 수학의 재미를 느끼고 있다. 이상국기자

내년 장애인주차구역 관제 기기 확대

제주시, 10여곳 40여대 추가 시범운영 계도율 96.5% 효과

제주시 관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관제 시스템이 확대 운영된다. 제주시는 “2023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관제 기기 40여 대를 공공시설 10여 곳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제 시스템은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일반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진입 시 차량번호를 인식해 경고 알람소리를 울려 차량이 자진 이동하도록 사전 계도하는 장치다. 제주시는 지난해 12월 공공시설 8개소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관제 기기 30대를 설치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번 주차관제 시스템 확대는 지난 1~7월 운영 결과 계도율 96.5%의 효과를 보였다는 분석 때문이다. 이 기간 해당 시스템에 총 1만 157대가 주차했고 이 중 미등록차량이 3573대였지만 경고 알람을 무시한 주차 위반 차량은 116대였다.

이에 제주시는 내년 제주시 아라동주민센터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 10여 곳에 주차관제 기기 40여 대를 확대 설치하기로 하고 2023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했다. **진선희기자**

초·중·고 난치병 학생 139명 도교육청, 1억8300만원 지원

제주 초·중·고 등 난치병 학생 139명에게 총 1억8300만원이 지원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15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

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2년 제1차 집중신청기간 접수 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심사 결과 총 139명에게 1억8333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9명, 중학교 27명, 고등학교 26명, 특수학교 13명이다. **진선희기자**

제7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배 전국 유소년 승마대회

일시 2022년 9월 23일(금) / 오전 7시 30분 ~ 오후 6시

장소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교육마장

주최/주관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말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서귀포시승마협회

후원 농림축산식품부 제주특별자치도 한국마사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